

박문각 남부고시 이유진 교수

2019 서울시 추가채용 7급 국어(A형)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대표 강사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종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우월한 문법규정,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어휘한자, 박문각
이유진 한자의 날개, 박문각
이유진 국어 독해알고리즘, 헤르메스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국어 올인원,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300제,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실전300제, 박문각
메가북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디딤돌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국문학과 국사의 입맞춤,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문 1. 효(孝)와 관계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 ① 斑衣之戲 ② 斷機之戒
- ③ 陸績懷橘 ④ 望雲之情

★ 정답: ② - 어휘 - 성어

적중) 효와 관계된 사자성어(우월한 어휘·한자 p.293, p.294)

★ 정답 해설:

‘斷機之戒(단기지계)’는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은 찢든 베의 날을 끊는 것과 같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맹자 어머니의 훈계에서 유래한 말로, 효(孝)와는 관련이 없다. 之는 여기서 ‘~의’라는 의미로, 직역하면 ‘베를 끊음의 훈계’이다.

斷 끊을 단, 機 틀 기, 之 갈 지, 戒 경계할 계

★ 오답 해설:

① 斑衣之戲(반의지희): ‘울긋불긋한 때때옷을 입고 하는 놀이’라는 뜻으로, 늙어서도 부모에게 효양함을 이르는 말. 주나라 시대 노래자가 70살이 되었는데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때때옷을 입고 어린아이 흉내를 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斑 아롱질 반, 衣 옷 의, 之 갈 지, 戲 희롱할 희

③ 陸績懷橘(육적회귤): ‘육적이 귤을 가슴에 품다’라는 뜻으로, 지극한 효성을 비유하는 말이다.

陸 물 릉/육, 績 길쌈할 적, 懷 품을 회, 橘 귤 귤

④ 望雲之情(망운지정): ‘구름을 바라보며 그리워한다’라는 뜻이다. ‘타향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를 생각함’을 의미하거나 ‘멀리 떠난 자식이 어버이를 사모하여 그리는 정’을 의미한다.

望 바랄 망, 雲 구름 운, 之 갈 지, 情 뜻 정

문 2. 의미관계와 단어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의 관계(synonymy) - 근심 : 시름
- ② 반의 관계(antonymy) - 볼록 : 오목
- ③ 상하 관계(hyponymy) - 할아버지 : 손자
- ④ 부분 관계(meronymy) - 코 : 얼굴

★ 정답: ③ - 이론 문법 - 의미론 - 어휘의 의미관계

적중) 이유 있는 진도 모의고사 7회 8번

★ 정답 해설:

상하 관계란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섭되는 관계를 뜻한다. 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상위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하위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포섭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상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고) 상하관계(우월한 문법·규정 p.329)

(1) 분류적 관계

예) 생물-동물-척추 동물, 인류-몽골리안-한국인

(2) 분석적 관계

예) 시계 - 시침, 분침, 초침

★ 오답 해설:

① 동의 관계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서로 소리는 다르나 의미가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동의어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그 의미가 동일하므로 문맥 속에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근심’과 ‘시름’은 그 의미가 각각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 함’,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고 항상 남아 있는 근심과 걱정’으로 그 의미가 동일해 문맥 속에서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동의 관계이다.

② 반의 관계는 둘 사이에 공통적인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도 단 하나의 요소만 대조적이어야 성립한다. ‘볼록’과 ‘오목’은 ‘모양’이라는 공통적인 의미 요소가 있고 각각 ‘조금 도드라지거나 솟 내밀린 모양’과 ‘패거나 들어간 있는 모양’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이므로 반의 관계이다.

④ 부분 관계는 상하 관계 중 분석적 관계를 의미한다. 상하 관계란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섭되는 관계이며, 분석적 관계는 전체와 부분관계이다. ‘코’와 ‘얼굴’은 ‘부분’과 ‘전체’에 해당하므로 부분 관계이다.

문 3. <보기>의 음운 변동 사례 중 옳은 것은?

<보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 ‘집일[집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 ‘닭만[당만]’은 탈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 ‘뜻하다[뜨타다]’는 축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2개 증가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 정답: ① - 이론 문법 - 음운론 - 음운의 변동

적중) 이유진 서울시 추가채용 모의고사 4회 1번 문제/이유진 올인원 p.4, p.5 유형 적중

★ 정답 해설:

㉠ 초성의 ‘ㅇ’은 음운의 개수로 세지 않으므로 ‘집일’의 음운의 개수는 ‘ㄱ / ㅈ / ㅊ / ㅌ / ㄹ’로, 5개이다. ‘집일’은 발음할 때 사잇소리 현상(첨가)으로 ‘ㄴ’이 첨가된 뒤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집일’의 발음인 [집닐]은 음운의 개수가 ‘ㄱ / ㅈ / ㅊ / ㅌ / ㄹ’로, 6개이다. 따라서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참고) 음운의 변동(우월한 문법·규정 p.38, p.52)

교체(交替)	축약(縮約)	탈락(脫落)	첨가(添加)
특정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두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	두 음운 중에 하나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형태소 합성될 때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

※ 음운의 개수를 따질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받침의 ‘ㅇ’은 음운이나 초성의 ‘ㅇ’은 발음이 나지 않으므로 음운이 아니다.
㉡ 사이시옷은 단순한 소리 부호일 뿐이므로 음운의 수에도, 형태소의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모음은 단모음이긴 이중 모음이긴 하나의 음운으로 취급한다. 즉, ‘ㅏ’는 ‘ㅏ’, ‘ㅑ’라는 두 개의 음운이 아니라 이중 모음 ‘ㅏ’라는 하나의 음운이다.

★ 오답 해설:

㉡ ㉢ ‘답만’은 겹받침 ‘ㅌ’이 자음군 단순화(탈락)로 인해 ‘ㄱ’이 된 후,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당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음운의 개수는 ‘ㄷ/ㅌ/ㄹ/ㅍ/ㅊ/ㅌ/ㄹ’ 7개에서 ‘ㄷ/ㅌ/ㅇ/ㅍ/ㅌ/ㄹ’ 6개로 줄어든 것이 맞으나, 탈락과 교체가 모두 일어났으므로 ‘탈락만 일어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 ‘뜻하다’는 ‘뜻’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ㅌ’이 된 후, 받침의 ‘ㄷ’이 ‘하다’의 ‘ㅎ’과 만나 거센소리되기(축약)에 의해 [뜨타다]로 발음된다. 음운의 개수가 ‘ㄷ/ㅌ/ㅍ/ㅊ/ㅌ/ㄹ’ 7개에서 ‘ㄷ/ㅌ/ㅍ/ㅊ/ㅌ/ㄹ’ 6개로 줄어든 것은 맞으나 교체와 축약이 모두 일어났으므로 ‘축약만 일어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 ‘말는’은 ‘말’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ㅌ’이 된 후 비음화(교체)로 인해 [만는]이 된다. 교체가 두 번 일어난 것은 맞으나 음운의 개수는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6개이다.

문 4.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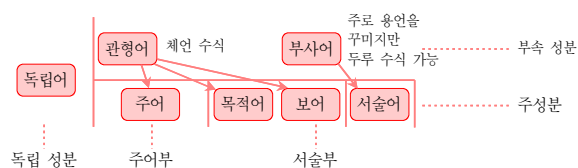
- ①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다.
- ② 그 학생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더라.
- ③ 바로 옆집에 삼촌이 사신다.
- ④ 5월에 예쁜 꽃을 보러 가자.

★ 정답: ② - 이론 문법 - 통사론 - 문장 성분

★ 정답 해설:

‘아주’의 품사는 부사이며 관형사인 ‘새’를 수식하고 있다. 부사 단독으로 관형어이자 관형사인 ‘새’를 수식하는 ‘아주’의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부사어는 용언을 주로 꾸미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주기도 하는 문장 성분을 이룬다.

참고) 문장 성분의 종류(유형한 문법·규정 p.263)



★ 오답 해설: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만을 수식하는 수식어로 ‘어떤, 어떠한’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이룬다. 관형사, 체언, 그리고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의 명사형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형태가 있다.

① ‘어머니의’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체언 ‘어머니’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형태인 ‘어머니의’가 바로 뒤에 오는 체언인 ‘말씀’을 수식하고 있다.

③ ‘바로’는 본래 다른 말을 수식할 때 부사로 쓰이는 단어이다. 부사는 용언의 한정어 주 기능이지만, 부사, 관형사, 체언을 한정하기도 한다. ‘바로 옆집’이 부사가 체언을 한정하는 경우이다. 품사로는 부사이나 체언인 ‘옆집’을 바로 앞에서 수식하는 ‘바로’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④ ‘예쁜’은 형용사 ‘예쁘다’의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결합한 관형절이며 체언 ‘꽃’을 수식하고 있다. ‘예쁜’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문 5. <보기>를 참고하여 문장에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예)와 같이 이들 높임법이 문장 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와 ‘-’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영수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①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

(+주체, -객체, -상대)

②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

(-주체, +객체, +상대)

③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④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 정답: ① - 이론 문법 - 높임법과 언어 예절

적중) 이유진 올인원 p.21, p.33 유형 적중

서울시는 ②로 정답을 공개하였다가 추후 ①로 정답을 교체하였습니다.

정답 교체 근거는 모든 문장에는 상대 높임법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서울시의 결정은 애초 보기에 조건이 부족했던 문장에 대해 문항 오류를 정답 공개 오류로 잘못 처리한 것이라는 의견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유튜브 해설 참고)

- 근거: +/-를 통해 의미 변별 자질을 구분하는 문항은 애초 대전제를 +로 설정하였을 때는 출제된 적이 없으므로, <보기>의 ‘상대 높임법이 나타날 때’를 ‘상대를 높이려는 의도’로 파악해온 것이 그간 기술의 기준임

★ 정답 해설:

② 주체인 ‘영희’를 높이는 표현이 없으므로 ‘-주체’가 맞다.

높임의 부사격 조사 ‘께’와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활용해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 객체’가 맞다.

‘드렸다’는 격식체 중 해라체에 해당한다. 해라체는 높임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로 표시해야 한다.

★ 오답 해설:

①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 주체’가 맞다.

높임의 부사격 조사인 ‘께’나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 따위의, 객체인 ‘영희’를 높이는 표현이 없으므로 ‘-객체’가 맞다.

상대 높임법은 주로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데 ‘주셨다(주시었다)’는 격식체 중 해라체이다. 해라체는 높임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가 맞다.

③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해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 주체’가 맞다.

객체인 ‘영희’를 높이는 표현이 없으므로 ‘-객체’가 맞다.

제시된 문장의 종결 표현에는 격식체 중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다’를 활용했으므로 ‘+ 상대’가 맞다.

④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해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 주체’가 맞다.

높임의 부사격 조사인 ‘께’와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활용해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 객체’가 맞다.

제시된 문장의 종결 표현에는 격식체 중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다’를 활용했으므로 ‘+ 상대’가 맞다.

문 6. <보기>는 두보의 시 「곡강(曲江)」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기>

조정에서 돌아오면 봄옷을 저당 잡히고, 매일 강어귀에서 만취되어 돌아오네. 술빛은 늘 가는 곳마다 있건만, 인생 ()은 예로부터 드물구나. 꽃 속으로 날아드는 나비는 그윽하고, 물 위로 풍지를 닿을 듯 나는 잠자리는 유유히네. 내 전하고픈 말은 풍광과 함께 흐르노니, 잠시나마 서로 즐기고 부디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라네.

- ① 오십 ② 육십 ③ 칠십 ④ 팔십

★ 정답: ③ - 어휘 - 나이를 이르는 말

★ 정답 해설:

<보기>의 '인생 ()은 예로부터 드물구나'라는 표현에서 빈칸에 들어갈 나이가 '옛부터 드문 나이', 즉 '古稀(옛 고, 드물 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두보의 시 「곡강」 -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유래

참고) 나이별 한자 호칭어(우월한 어휘한자 p.326)

나 이	호 칭	나 이	호 칭
10세(안팍)	충년(沖年)	61세	환갑(還甲)
15세	지학(志學)		회갑(回甲)
16세	과년(瓜年)		환력(還曆)
	방년(芳年)		화갑(華甲)
20세(안팍)	묘령(妙齡)	62세	진갑(進甲)
	약관(弱冠)	70세	고희(古稀)
30세	이립(而立)		종심(從心)
40세	불혹(不惑)	77세	희수(喜壽)
48세	상년(桑年)	80세	산수(傘壽)
	상수(桑壽)	88세	미수(米壽)
50세	지천명(知天命)	90세	졸수(卒壽)
	지명(知命)		동리(凍梨)
	애년(艾年)	99세	백수(白壽)
60세	이순(耳順)	100세	기이저수(期頤之壽)
	육순(六旬)		

문 7.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 하는 실체이다. 독립된 존재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다.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체이원론이며, 이 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통상 데카르트가 언급된다. 기계와 이성이 서로를 배제한다는 생각은 이원론적 사고의 한 유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두뇌를 포함한 몸은 그것의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마음은 물리적 속성을 결여한 비물리적 실체이다. 이성을 가지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실체이다.

- ① 이원론은 물리적 실체와 마음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겠군.
 ② 이원론은 몸이 비물리적 실체일 수 있다고 보겠군.
 ③ 이원론은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④ 이원론은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보겠군.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보기>에 따르면 이원론에서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 또한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체이원론이다. 따라서 이원론은 마음과 몸이 서로 독립된 실체이므로 마음이 없는 몸은 가능하다고 본다.

★ 오답 해설:

- ① 이원론은 마음이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인 동시에 독립된 실체라고 본다. 따라서 마음과 몸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 따르면 몸은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마음은 물리적 속성을 결여한 비물리적 실체이다. 이원론은 몸과 마음을 서로 독립된 실체라고 보기에 몸을 비물리적 실체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원론은 마음과 몸이 서로 독립된 실체이므로 몸이 없는 마음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 8. 주어진 단어를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을 때 그 요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파김치 ② 짜임새
 ③ 주름살 ④ 지름길

★ 정답: ② - 이론 문법 - 형태론 - 형태소 분석

적중) 이유진 서울시 추가채용 모의고사 6회 2번 문제/이유진 올인원 p.7
 선지 적중

★ 정답 해설:

지문에서 제시된 단어를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라고 하였는데 이는 형태소 분석을 하라는 것이다. 형태소는 뜻(의미)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이다. '짜임새'를 형태소로 나누면 '짜-(동사 '짜다'의 어간)+-이-(피동 접사)+-ㅁ(명사화 접사)+-새(접사)' 4개로 그 개수가 가장 많다.

참고) 형태소 분석(우월한 문법·규정 p.93)

㉠ '체연+조사, 접사+어근, 어근+어미'는 나눈다.

예) 사랑이다: 사랑+이+--+다(서술격 조사 '이다' 나누기)

작하다: 작+--+하+--+다(접미사 '-하다' 나누기)

콧등: 코(명사)+등(명사) - 사이시옷은 형태소가 아니다.

먹어라: 먹-(동사 어간)+-어라(명령형 어미)

㉡ '어간+어미'를 나누고 '어미'는 종류별로 다시 나눈다. '높임의 선어말 어미+시제의 선어말 어미+연결 어미(종결 어미)' 등

예) 가시겠댜: 가+--+시+--+있+--+겠+--+다(어간 + 높임 + 과거 + 추측 + 어미)
 한다: 하+--+ㄴ+--+다(어간 + 현재 + 어미)

㉢ 준말은 본딤말로 풀어서, 탈락된 형태소는 복원하여 나눈다.

예) 우셨다: 울+--+시+--+있+--+다(집에 가: 집+에+가+--+아

★ 오답 해설:

- ① '파김치'는 '파(명사)+김치(명사)' 2개로 나눌 수 있다.
 ③ '주름살'은 '주름(명사)+살(명사)' 2개로 나눌 수 있다.
 ④ '지름길'은 '지르-(동사 '지르다'의 어간)+--+ㅁ(명사형 전성어미)+길(명사)' 3개로 나눌 수 있다.

문 9.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 ① 첫술에 배부르랴.
- ② 내 코가 석 자다.
-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
- ④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

★ 정답: ④ - 7급 한문 + 어휘 - 속담

적중) 한문(우월한 어휘)한자 p.239p 30번 문제-2017 국가직 7급 추가채용)

★ 정답 해설: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욕속즉부달, 견소리즉대사불성)’은 논어의 한 구절로 일을 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급하다 하여도 꼭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일을 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와 가장 잘 통한다.

★ 오답 해설:

- ① 첫술에 배부르랴: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말.
- ② 내 코가 석 자다: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져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10. <보기>에서 주된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보기>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제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잊당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① 사소함 ② 괴로움 ③기다림 ④생각함

★ 정답: ① -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형식 이해

적중) 이유진 올인원 p.116 3번 유형 적중/지문+출제요소(반어법)(우월한 독해 p.611)

★ 정답 해설:

<보기>의 시는 황동규 시인의 <즐거움 편지>이다. 이 시의 주된 표현 기법은 반어법이다. 반어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표면적 의미와는 반대로 해석되는 것을 말한다. <보기>에서 시적 화자는 그대를 생각하는 일이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사소함’은 문자 그대로 ‘보잘것없이 작거나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일’을 뜻한다. 즉, 자신의 사랑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표현하지만 그 속뜻은 매우 소중한 것과 간절함을 나타내는 반어적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의 주된 표현 기법인 ‘반어법’은 ‘사소함’이라는 단어로 함축되어 표현된다.

문 11. <보기>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작품은?

<보기>

하꼬방 유리 딱지에 애새끼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 쪼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 ① 김승옥의 『무진기행』
- ②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
- ③ 이문구의 『우리동네 김씨』
- ④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 정답: ④ - 지식국어 - 현대 문학사

★ 작품 해설:

※ 구상, <초토의 시 1>

● 해제: 이 시는 6.25 전쟁 당시 중군 기자로 활동하면서 전쟁을 목도한 시인이 자신의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열다섯 편의 연작시 중 하나이다. 초토란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이는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우리 조국을 일컫는다. 연작시의 1편인 이 시에서 화자는 초토와 같은 조국의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모습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밝은 미래를 발견한다.

● 주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발견한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

● 구성

- 1연: 전란 후 폐허 속에 있는 아이들을 봄.
- 2연: 전쟁의 비극을 인식하며 괴로워 함.
- 3연: 젓더미 속에서 개나리를 발견함.
- 4연: 언덕을 내리닫는 순수한 소녀의 미소를 봄.
- 5연: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봄.

★ 정답 해설:

<보기>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초토의 시 1>의 일부이다. 피난민의 주거 공간을 뜻하는 하꼬방과 애새끼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등의 시어를 통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임을 유추할 수 있다. 6.25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을 겪은 젊은이들의 정신적 방황과 갈등을 통하여 인간 구원의 문제를 다룬 ④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작품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무진기행』의 배경은 전쟁 상황이 아니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안개로 상징되는 허무에서 벗어나 일상 공간으로 돌아오는 한 젊은이의 귀향 체험을 통해 1960년대 의식의 방황을 그린 작품이다.
- ② 『삼포가는 길』의 배경은 전쟁 상황이 아니다.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고향 상실과 소외된 존재를 통해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부정적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 ③ 『우리동네 김씨』의 배경은 전쟁 상황이 아니다. 이문구의 『우리동네 김씨』는 농민인 김 씨를 통해 가문에 지친 농가의 실상과 민방위 교육을 통한 국가정책의 현실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문 12.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

- ① 손쉽다
- ② 맛나다
- ③ 시름없다
- ④ 남다르다

★ 정답: ②④(복수정답 인정) - 이론 문법 - 형태론 - 단어의 형성
 (적중) 이유진 올인원 p.8 선지 적중
 서울시는 ④로 정답을 공개하였다가 추후 ②를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였습
 니다.
 저(이유진)는 단어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복합어를 합성어와 파생
 어로 나누고, 그 이후 합성어의 구성을 따지는 것이 순차적인 분류 기준이
 니 ②만을 답안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공개하였습니다.(유투브
 에서 해설 참고하세요!)
 ★ 정답 해설:
 ② ‘맛나다’는 접사 ‘-나다’와 결합한 파생어로 보는 관점과 ‘맛(이)+나다’
 로 ‘주어+서술어’의 구조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관점이 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답변》
 사전에서는 ‘-나다’를 접사로 처리하고 있고, 해당 용례에 ‘맛나다’가 있으
 므로 사전적인 관점에 따르면 ‘맛나다’는 파생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
 다.(2016. 2. 16.)
 ④ ‘남다르다’는 ‘남(과)+다르다’로 ‘부사어+서술어’의 구조로 결합된 통사
 적 합성어이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답변》
 “표준국어문법론”에 따르면 ‘부사어+서술어’의 구성형태에서 부사격조사의
 소거를 거쳐 형성된 ‘앞서다, 뒤서다, 거울삼다, 벋삼다’ 등을 통사적 합성
 어로 보고 있는 것에 준하여 본다면 ‘남다르다’도 ‘남과 다르다’에서 부사격
 조사 ‘과’가 생략된 형태의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2016. 6. 26.)
 ★ 오답 해설:
 ① ‘손쉽다’는 ‘손(이)+쉽다’로 ‘주어+서술어’의 구조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
 어이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답변》
 ‘손쉽다’는 ‘손이 쉽다’, ‘손에 쉽다’로 볼 수 있습니다. 단어 형성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견해를 참고
 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2019. 2. 11.)
 ③ ‘시름없다’는 ‘시름(이)+없다’로 ‘주어+서술어’의 구조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답변》
 ‘한글 맞춤법 제26항 해설’에서 “‘상없다, 시름없다’ 따위를 파생어로 다룰
 것이나 합성어로 다룰 것이냐 하는 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
 례에 따라 접미사(-없다) 결합 형식으로 잡아 본 항에서 다루었다.”라고 제
 시하고 있듯이 ‘-없다’를 접미사로 볼 것인가에 대해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설서’는 집필자의 견해 또는 그 당시의 통례로 ‘-없
 다’는 접미사로 본 듯한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접미사 ‘-없다’를 등재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절없다, 상없다’의 ‘없다’를 형용사 ‘없다’
 가 결합된 합성어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2014. 6. 11.)

문 13. <보기>의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가)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나) 생사의 길은 /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가느냐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여기 저기 떨어지는 나
 못잊쳐림 / 한 가지에 나고 서도 /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 아으,
 미타찰(彌陀刹) 에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리.

(다)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라)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흔 님
 추풍(秋風) 낙엽(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 ① (가)-(다)-(나)-(라)
- ② (가)-(다)-(라)-(나)
- ③ (다)-(가)-(나)-(라)
- ④ (다)-(나)-(가)-(라)

★ 정답: ④ - 지식국어 - 고전 문학사
 (적중) 이유진 서울시 추가채용 모의고사 1회 19번
 ★ 정답 해설:
 고대가요 - 향가 - 한시 - 시조
 (다) 고대가요, <황조가> - 유리왕 3년
 (나) 향가, 월명사 <제망매가> - 신라 경덕왕(8세기)
 (가) 한시, 정지상 <송인> - 고려 인종(12세기)
 (라) 기녀 시조, 계랑 <이화우 훗뿌릴 제> - 조선(16세기)

문 14.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형태소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형태소의 교체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자동적 교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체를 말하며,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교체를 말한다.

(가) 알-: 알+는 → [아:는]
 (나) 안-: 안+고 → [안:꼬]
 (다) 아름답-: 아름답+은 → [아름다운]
 (라) 먹-: 먹+는 → [멍는]

- ① (가)는 국어에 ‘ㄹ’과 ‘ㄴ’이 연속될 때 ‘ㄹㄴ’이 함께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 어간의 중성 ‘ㄹ’이 탈락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② (나)는 국어에 ‘ㄴ’과 ‘ㄱ’이 연속될 때 ‘ㄱ’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어미 ‘-고’는 [꼬]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③ (다)는 국어에 ‘ㅂ’과 ‘은’이 연속될 때 ‘븐’이 아니라 [운]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어미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④ (라)는 국어에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규칙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정답: ① - 이론 문법 - 형태론 - 용언의 활용

적중) 이유진 올인원 p.36, p.37 선지 적중

★ 정답 해설:

(가)는 어간 끝 받침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오, -으’ 앞에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는 ‘ㄹ’ 규칙 활용에 대한 내용이다. 규칙 활용은 제시된 요건만 충족된다면 예외 없이 일어나므로 (가)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오답 해설:

② 끝소리가 ‘ㄴ(ㄴ), ㄹ(ㄹ)’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활용 어미가 이어지면 그 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교체의 된소리되기에 대한 내용이다. 다만, ‘안기다[안기다], 감기다[감기다], 굶기다[굶기다]’와 같이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제시된 교체의 된소리되기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웃고름[온꼬름], 국밥[국뽕]’과 같이 받침 ‘ㄱ(ㄱ, ㅋ, ㆁ), ㄷ(ㄷ, ㅌ, ㄴ), ㅌ(ㅌ, ㅍ, ㅊ, ㅍ)’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교체의 된소리되기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현상이므로 자동적 교체라 할 수 있다.

③ (다)는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ㅇ/우’로 바뀌는 ‘ㅂ’ 불규칙 활용에 대한 내용이다.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나 어미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자동적 교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같은 환경에서도 규칙 활용을 하는 ‘잡다’의 경우 ‘잡은’으로 활용한다.

④ (라)는 받침으로 쓰이는 파열음(ㄱ, ㄷ, ㅂ)이나 유음(ㄹ)이 비음(ㄴ, ㄹ)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에 대한 내용이다. 파열음이나 유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았을 때 비음으로 바뀌지 않는 예외가 없으므로 (라)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문 1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 열 그릇이나 켜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재단(裁斷)에 능소능대(能小能大) 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 세누비 미누비 저른 술 긴 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이 자혀 내고 교두 각시 버혀 낸다 하나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 공이라 자랑하냐뇨.”

- ① 서술자는 ‘세요 각시’, 즉 ‘바늘’이다.
- ② 자기 자랑을 하기에 앞서 타인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
- ③ ‘능소능대(能小能大)’는 몸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척 부인’과 ‘교두 각시’는 각각 ‘자’와 ‘인두’를 가리킨다.

★ 정답: ① -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적중) 이유진 올인원 p.137 22번 지문 적중/고전 산문(우월한 독해 p.546)

참고) 작자 미상, <규중칠우(七友)쟁론기>

• 해제: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한글 수필로, 규방 부인이 침선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척 부인(자), 세요 각시(바늘), 교두 각시(가위), 청홍 각시(실), 인화 부인(인두), 울 낭자(다리미), 감도 할미(골무)로 의인화하여 인간 세상의 처세술을 드러내며 풍자하고 있다. 규중 칠우는 의복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과 관련해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데, 도구의 모양이나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규중 칠우를 조선조 규방 여인들을 의인화한 존재로 본다면, 자신의 능력과 노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내포한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 주제: 역할과 직분에 맞는 삶에 대한 인식과 추구

• 전체 줄거리: 규중 부인이 잠든 사이 칠우는 제각기 자신의 공을 늘어놓으며 다투는데, 부인에게 꾸중을 듣게 되자, 이번에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 잠에서 깬 부인이 이를 꾸짖자 감도 할미가 나서서 사죄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그 공을 인정받게 된다.

★ 정답 해설:

<보기>는 조선시대 가전체 작품인 <규중칠우쟁론기>의 일부이다. <규중칠우쟁론기>는 여성이 옷을 짓는 데 필요한 자, 바늘, 가위, 실, 골무, 인두, 다리미를 의인화한 작품이다. <보기>는 그중에서도 ‘세요 각시’ 즉, 바늘이 말하는 부분이다. <보기>에서 ‘세누비 미누비 저른 술 긴 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② <보기>에서 ‘재단(裁斷)에 능소능대(能小能大) 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타인의 공을 인정하기 보다는 자기 자랑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능소능대(能小能大)’는 ‘작은 일에도 능하고 큰일에도 능함’, 즉 모든 일에 두루 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能 능할 능, 小 작을 소, 能 능할 능, 大 클 대/큰 대

④ ‘교두 각시’는 ‘교두 각시 버혀 낸다 하나’라는 부분을 통해 ‘가위’를 의인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 16.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주동문과 사동문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이다. 다음 중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내가 책을 읽었다.
(나)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다) 우리가 산을 뽐니다.
(라)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 ①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
- ②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
- ③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부사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이다.
- ④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 정답: ② - 이론 문법 - 통사론 -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적중) 이유진 올인원 p.18, p.19 선지 적중

★ 정답 해설:

사동문인 (나)에서 행위 '읽다'의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 '나에게'의 '나'이다. 사동사인 '읽히다'는 '...에게' 형태의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피동문인 (라)에서 행위 '보다'의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 '우리에게'의 '우리'이다. 피동사인 '보이다'는 '산이 보이다.'와 같이 부사어 없이 쓰는 것도 가능하므로 '우리에게'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며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오답 해설:

① (나)의 '읽히다'는 동사 '읽다'와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히-'를 결합한 사동사이며 접미사와 결합했으므로 파생어이다.

(라)의 '보이다'는 동사 '보다'와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를 결합한 피동사이며 접미사와 결합했으므로 파생어이다.

(나), (라)와 같이 파생적 사동(=단형 사동)과 파생적 피동(=단형 피동)은 주동사의 어간에 접미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를 활용한다.

③ 주동문인 '내가 책을 읽었다.'를 사동문으로 바꾸면 제시된 사동문인 (나)가 된다. 사동문 (나)에 나타난 부사어 '나에게'는 주동문에서 '내가'로 쓰여 주어 역할을 한다.

능동문인 '우리가 산을 뽐니다.'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제시된 피동문인 (라)가 된다. 피동문 (라)에 나타난 부사어 '우리에게'는 능동문에서 '우리가'로 쓰이며 주어 역할을 한다.

④ 주동문인 '내가 책을 읽었다.'의 서술어 '읽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사동사인 '읽히다'를 활용하여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 서술어 '읽히다'는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능동문인 '우리가 산을 뽐니다.'의 서술어 '보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피동사인 '보이다'를 활용하여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 서술어 '보이다'는 주어를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부사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문 17. <보기>의 어휘들은 통시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 준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늑: '사람평칭' → '남자의 비칭'
(나) 겨레: '종친, 친척' → '민족, 동족'
(다) 아침밥 > 아침
(라) 맛비 > 장맛비

- ① (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 ② (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예이다.
- ③ (다)는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예이다.
- ④ (라)는 형태의 일부가 덧붙여진 후에도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이다.

★ 정답: ④ - 이론 문법 - 의미론 - 어휘의 언어 변천

적중) 이유진 올인원 p.34 유형 및 선지 적중/의미 변화의 유형(우월한 문법규정 p.331)

★ 정답 해설:

(라) '맛비'는 '장마'의 옛말로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라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장맛비'는 '장마 때에 오는 비' 자체이므로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라고 할 수 없다.

※ 중세국어 '당마'는 복잡한 음운 변화를 거쳐 현재의 '장마'로 이어졌다. 현대국어 '장마'에도 '오랫동안 내리는 비'와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현상'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달려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쓰인다. 전자의 의미는 '장맛비'가 대신한 지 오래이다.

'장맛비'는 17세기 문헌에 '당맛비'로 보인다. '당마'가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현상'이라는 의미로 편향되어 쓰이면서 '오랫동안 내리는 비'라는 의미에 공백이 생기자 이를 메우기 위해 '당마'와 '비'를 결합하여 '당맛비'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다.

'장맛비'가 등장한 이후 '장마'는 '오랫동안 내리는 비'라는 의미는 '장맛비'에 넘겨주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현상'이라는 의미에 충실하고 있다. '장마'와 '장맛비'의 의미 분담이 분명해진 것이다.

<충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출처: 문화일보 2017-07-07

★ 오답 해설:

① (가): 사람을 두루 이르는 말에서 비속어가 된 것은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

② (나): '종친', '친척'을 이르는 말에서 '민족', '동족'을 이르는 말이 된 것은 의미가 확대된 예이다.

③ (다): '아침'이라는 단어가 '밥'이라는 단어와 자주 접촉하여 쓰이면서 '밥'을 생략하여도 '아침'이 '아침밥'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단어 구성의 일부가 줄었지만, 생략된 부분의 의미가 남은 부분에 감염(잔류)된 현상이다.

문 18.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
-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
- ③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형태론 - 품사 - 조사의 성격

적중) 이유진 서울시 추가채용 모의고사 4회 3번 문제/이유진 올인원 p.11

유형 및 선지 적중

★ 정답 해설: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에서 조사 ‘과’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이때 ‘과’는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된 자리에는 첨표를 찍는다. 이는 ‘수학’과 ‘영어’가 대등한 열거 대상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문장에서 ‘수학’이나 ‘영어’ 중 하나를 생략해도 ‘좋아하다’라는 서술어와 목적어의 호응에는 문제가 없다.

참고) 조사 와/과의 쓰임(우월한 어휘한자 p.326)

- 문장 접속: 백제와 신라는 우리나라이다.
- 단어 접속: 그와 그녀가 약속하다.
- 동반 부사격 조사: 그가 그녀와 함께 떠났다.
- 비교 부사격 조사: 배는 사과와 다르다.

★ 오답 해설:

-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에서 조사 ‘과’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이때는 ‘뜬구름과’가 서술어 ‘같다’에 대해 필수 부사어이다.
-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에서 조사 ‘하고’는 구어체로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동반 부사격 조사이다. 이때 ‘영수하고’가 ‘친하다’에 대해 필수 부사어이다.
-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에서 조사 ‘와’는 문법상 ‘나’와 ‘그 친구’를 접속하는 접속 조사이지만, 부사어 ‘서로’와 서술어 ‘의지하다’로 인해 동반 부사어를 만드는 격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문 1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현대어 해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자내 상해 ㉠ 날드려 닐오되 둘이 머리 세도록 사다가 흠뻑 죽자
 흐시더니 엇디하야 나를 두고 자내 문져 가 시는 날하고 죽식하며
 뉘 괴질하야 엇디하야 살라 하야 다 더디고 자내 문져 가시논고 자
 내 날 향히 므으물었디 가지며 나는 자내 ㉡ 향히 므으물을 엇디 가
 지던고 피양 자내드려 내 닐오되하의 누어서 이 보소 늪도 우리
 ㉢ 서로 예엿세 너져 스랑하리 늪도 우리 ㉣ ㄱ튼가 하야 자 내드려
 니르더니 엇디 그런 이룰싱각디 ㉤ 아녀 나를 브리고 문져 가시
 고 자내 ㉥ 여히고 아므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내 하의 가고져
 하니 날 드려 가소

- ① ㉠ 나를 따라서
- ② ㉡ 향하여
- ③ ㉢ 아니하여
- ④ ㉤ 여의고

★ 정답: ① - 독해(문학) - 고전 산문 속 어휘

적중) 고전지문과 고전문법 3강 주제별 시조 정리 교어 100개

★ 정답 해설:

제시된 글은 이응태 묘 출토 언간, 또는 원이 어머니 편지라 불린다. 이는 원이 어머니가 남편 이응태를 사별하며 쓴 편지이다.

‘㉠날드려’는 ‘나에게(나더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대어풀이]

당신 언제나 ㉠나에게(나더러)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나를 향하여) 마음을 어떻게 가져 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당신을 향하여) 마음을 어떻게 가져 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아니하여)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나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문 20. <보기>의 ㉠~㉤에 들어가기에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보기>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다. (㉠)도 사건의 서술이지만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스토리이지만, ‘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는 (㉠) (이)다. 시간적 순서는 마찬가지로이지만 인과의 감각이 첨가된다. 또한 ‘왕비가 죽었다. 그러나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비를 간직한 (㉠) (이)며, 고도의 전개가 가능한 형식이다. 그것은 시간의 맥락을 끊고 한계가 허락하는 한 스토리에서 비약시키고 있다. 왕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만약 그것이 스토리가 될 경우엔 우리는 ‘(㉡)하고 물을 것이며, (㉠)의 경우엔 ‘(㉢)하고 물을 것이다.

- | ㉠ | ㉡ | ㉢ |
|-------------|--------|---------|
| ① 플롯(plot) | 왜? | 그 다음 엔? |
| ② 플롯(plot) | 그 다음엔? | 왜? |
| ③ 테마(theme) | 언제? | 왜? |
| ④ 테마(theme) | 그 다음엔? | 왜? |

★ 정답: ② - 독해 이론 - 빈칸 추론

★ 정답 해설:

<보기>에 따르면 ㉠은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 사건의 서술’이다. 따라서 ㉠에 적합한 것은 ‘플롯(plot)’이다.

※ 플롯(plot): 구성07(構成) ‘2’. =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거나 서술하는 일.

※ 테마(theme): 창작이나 논의의 중심 과제나 주된 내용. ‘주제04’로 순화.

<보기>에 따르면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다. 따라서 ㉡에는 ‘스토리에 따라 다음에 일어날 일을 물어볼 때 쓰는 말인 ‘그 다음엔?’이 적절하다. 또한 ㉢에 들어갈 말은 ‘플롯’에 따라 인과관계를 추론할 때 쓰는 말인 ‘왜?’가 적절하다.